

〈군산시〉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최우수상



당신이 그린대로, 귀농귀촌의 꿈이 이뤄지는 군산으로

군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 북도민일보에서 주최하고 일산 컨텍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박람회는 '2023 -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최신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를 위해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와 공동 개최됐다. 박람회는 국내 지자체, 관광업계 등 200여개 홍보부스가 전시,

운영됐다. 시는 ▷귀농·귀촌 정책 안내 및 관광자원 홍보, ▷군산시 대야면 소재 바나나 재배 청년 농가 홍보, ▷군산시 회현면 수제맥주 생산 농가 홍보, ▷군산시 개정면 귀농 양봉 창업농가 홍보 부스를 운영해 다른 부스와 차별적인 홍보를 선보였다.

또한 이번 행사가 국제 관광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된 만큼 변화하는 관광 및 귀농·귀촌 트렌드에 발맞춰 단순 귀농 정책 상담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군산

근대 역사·문화 탐방지 등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산 관광 방문 홍보와 귀촌 일자리 홍보를 진행해, 귀촌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공동 개최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의 90여개 지자체 및 관광업계 홍보 부스 중에서도 군산시 귀농인이 직접 참가해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생산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광자원과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해, 이를 높이 평가받아 귀농귀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홍보 박람회에 다수 참가해 귀농·귀촌의 장점을 적극적 알리고 있으며 이 노력을 인정받아 각종 부분에서의 수상을 통해 군산의 인지도와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이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막연하게 귀농·귀촌을 꿈꿔왔던 도시민에게 구체적인 농촌생활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변화하는 귀농·귀촌의 트렌드에 발맞춰 우리시 농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박수현 기자

“귀농귀촌의 꿈 이뤄지는 군산으로 오세요”

시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서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북도민일보가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23 -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최신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를 위해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와 공동 개최됐다.

박람회는 국내 지자체, 관광업계 등 200여개 홍보부스가 전시, 운영됐다.

시는 귀농·귀촌 정책 안내 및 관광자원 홍보, 군산시 대야면 소재

바나나 재배 청년 농가 홍보, 군산시 회현면 수제맥주 생산 농가 홍보, 군산시 개정면 귀농 양봉 창업 농가 홍보 부스를 운영해 다른 부스와 차별적인 홍보를 선보였다.

또 이번 행사가 국제 관광박람회와 동시 개최된 만큼 변화하는 관광 및 귀농·귀촌 트렌드에 발맞춰 단순 귀농 정책 상담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군산 근대 역사·문화 탐방지 등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산 관광 방문 홍보와 귀촌 일자리 홍보를 진행해, 귀촌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공동 개최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의 90여개 지자체 및 관광업계 홍보 부스 중에서도 군산시 귀농인이 직접 참가해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생산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광자원과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해, 이를 높이 평가받아 귀농귀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홍보 박람회에 다수 참가해 귀농·귀촌의 장점을 적극적 알리고 있으며 노력을 인정받아 각종 부분에서의 수상을 통해 군산의 인지도와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이고 있다.

/군산=이찬우 기자

全羅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요일 008면 지역

군산, 창업 귀농인들 성공 비법 소개 ‘결실’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최우수상
우수 농특산물 홍보 등 높은 평가

군산시가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최신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를 위해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와 공동 개최됐다. 박람회는 국내 지자체, 관광업계 등 200여개 홍보부스가 전시, 운영됐다.

시는 귀농·귀촌 정책 안내 및 관광자원, 군산시 대야면 소재 바나나 재배 청년 농가, 회현면 수제맥주 생산 농가, 개정면 귀농 양봉 창업농가 홍보 부스를 운영해 다른 부스와 차별적인 홍보를 선보였다.



군산시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국제 관광박람회와 동시 개최된 만큼 변화하는 관광 및 귀농·귀촌 트렌드에 발맞춰 단순 귀농 정책 상담뿐만 아니라 고

군산군도, 군산 근대 역사·문화 탐방지 등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산 관광 방문 홍보와 귀촌 일자리 홍보를 진행해, 귀촌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공동 개최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의 90여개 지자체 및 관광업계 홍보 부스 중에서도 군산시 귀농인이 직접 참가해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생산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광자원과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해, 이를 높이 평가받아 귀농귀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홍보 박람회에 다수 참가해 귀농·귀촌의 장점을 적극적 알리고 있으며 이 노력을 인정받아 각종 부분에서의 수상을 통해 군산의 인지도와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이고 있다.

/군산=강경창기자

귀농 귀촌 행복박람회서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 바나나재배·수제맥주·눈높이 관광·일자리 등 차별적 홍보 부스 운영

군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 북도민일보에서 주최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23 -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최신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를 위해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와 공동 개최됐다. 박람회는 국내 지자체, 관광업계 등 200여개 홍보부스가 전시, 운영됐다.

시는 귀농·귀촌 정책 안내 및 관광자원 홍보, 군산시 대야면 소재 바나나 재배 청년 농가 홍보, 군산시 회현면 수제 맥주 생산 농가 홍보, 군산시 개정면 귀농 양봉 창업농가 홍보 부스를 운영해 다른 부스와 차별적인 홍보를 선보였



다.

또한 이번 행사가 국제 관광박람회와
동시 개최된 만큼 변화하는 관광 및 귀
농·귀촌 트렌드에 발맞춰 단순 귀농 정
책 상담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군산
근대 역사·문화 탐방지 등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산 관광
방문 홍보와 귀촌 일자리 홍보를 진행

해, 귀촌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군산시 귀농인이 직접 참가해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생산한 농특산물
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광자원과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해,
이를 높이 평가받아 귀농귀촌 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김낙현 기자



군산시가 지난 11~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시,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최우수상

군산시가 지난 11~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최신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를 위해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와 공동으로 지자체, 관광업계 등 200여개 홍보부스가 전시·운영됐다.

군산시는 귀농·귀촌 정책 안내, 대야면 소재 바나나 재배 청년 농가, 회현면 수제맥주 생산 농가, 개정면 귀농 양봉 창업농가 등의 홍보 부스를 운영해 선보였다.

또한 국제 관광박람회와 동시 개최된 만큼 변화하는 관광 및 귀농·귀촌 트렌드에 발맞춰 고군산군도, 군산 근대역사·문화 탐방지 등 군산 관광 홍보를 진행해 귀촌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군산시 귀농인이 직접 참가해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생산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산 관광자원을 홍보해 귀농·귀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홍보 박람회에 다수 참가해 각종 부분에서 수상을 통해 군산의 인지도와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이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막연하게 귀농·귀촌을 꿈꿔왔던 도시민에게 구체적인 농촌생활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다"며 "농촌이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서 군산시 '최우수상' 받아

군산시가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박람회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각 지자체, 관광업계 등 200여개 홍보부스가 전시·운영됐다.

박람회에서 군산시는 귀농·귀촌 정책과 관광자원, 대야면 소재 바나나 재배 청년 농가, 회현면 수제맥주 생산 농가, 개정면 귀농 양봉 창업 농가 홍보 부스를 운영해 타 지자체와 차별적인 홍보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가 국제 관광박람회와 동시 개최된 만큼 변화하는 관광 및 귀농·귀촌 트렌드에 맞춰 단순 귀농 정책 상담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군산 근대 역사·문화 탐방지 등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귀촌 일자리 홍보를 진행해 귀촌의 매력을 뽐냈다. 특히 군산시는 귀농인이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생산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자원과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홍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귀농·귀촌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농기센터는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귀농 귀촌 행복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시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최우수상 쾌거

**귀농인 직접 참가해 농특산물
우수성-관광자원-정책 홍보**

군산시농기센터(소장 채왕균)는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귀농 귀촌 행복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이번 박람회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최신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 여기에는 국내 지자체, 관광업계 등 200여개 홍보부스가 전

시 운영됐으며, 군산시는 귀농 귀촌 정책 안내 및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또한 대야면 소재 바나나 재배 청년 농가와 회현면 수제맥주 생산 농가를 홍보했으며, 개정면 귀농 양봉 창업 농가를 적극 알리는 등 다른 부스와 차별적인 홍보를 선보였다.

특히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90여개 지자체 및 관광업계 홍보 부스 중에서도 군산시 귀농인이 직접 참가해 본인 들만의 노하우로 생산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광자원과 귀농 귀촌

정책을 홍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막연하게 귀농 귀촌을 꿈꿔왔던 도시민에게 구체적인 농촌 생활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다"며 "변화하는 귀농 귀촌 트렌드에 발맞춰 군산시 농촌이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귀농 귀촌 홍보 박람회에 다수 참가해 귀농 귀촌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